

## 한국인과 한국기업의 카나다 進出戰略

### (Ⅲ) 카나다경제의 특징과 그에 따른 한국인의 진출전략

김영수 (경제학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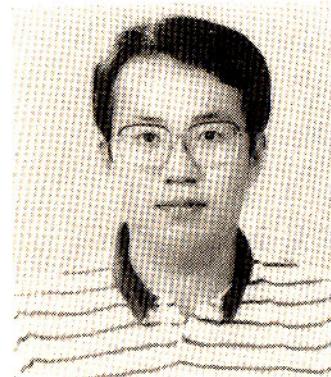
네번째손님: 집값 오를 것인가 내릴 것인가

理性的 豫言과豫言의 理性을 총동원하여

이러한 한국민의 神秘嗜好性向을 악용을 하여, 한 때, 필자는 일정 그룹의 사람에게는 특정 예언을 또 다른 그룹의 사람에게는 정반대의 예언을 공급한 적도 있다. 그 이유는 틀린 예언을 공급받은 사람들은 아래 저래 기억을 못하니까 필자는 별 손해보는 것이 없고, 맞은 예언을 공급받은 사람들은 '김 모 교수의 神通力'를 직접 체험한 열렬한 信徒그룹, 즉, 필자의 말이라면 정말 무조건 믿어버리는 필자의 확실한 팬이 되어버리곤 하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틀린 예언을 공급받은 사람들도, 무슨 말인가 김모가 예언을 한 것만 기억을 하지, 예언의 구체적인 내용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맞은 예언을 공급을 받은 그룹들이, 이 사람들앞에서 김 모의 신통력을 친양을 하다보면, '그런 유명한 사람을 나도 만나보았다'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아니, '그분과는 내가 더 친하다'라면서 끌리고 싶지 않은 그 경쟁심에서, '그 자식

순 엉터리야!'라고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맞아, 나도 그분께 직접 친히 예언을 들어보았는데, 기가 막히더라'식으로 말을 지어서 하기 마련이고, 이런 식으로 소문에 소문이 이어져서, 심지어는 유명한 사람들마저도 새벽에 몰래 비서를 보내더라 하는 이런 기가막힌 이야기이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점은, 神通力이라면 프로 예언가의 서너배 씩이나 가진 자칭 도사 김 모 자신도 자신의 예언을 별로 신통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으니, 예언 풍수 너무 좋아하지 말고 건실한 상식적 결정을 하여야 된다는 것이다.

하여간, 요사이도, 필자는 無許可로 無免許 예언을 심심치 않게 하는데, 별로 잘 맞지도 않는 예언을 이렇게 계속하는 이유는 누구처럼 '예언자적'使命을 타고 나서, 曠野의 외치는 소리가 되고자하는 그런 高尚한 動機가 아니라, 실은, 학문과



지식, 그리고, 진리에 관한 필자의 독특한 개인적인 믿음때문에 그렇다. 즉, 필자는 모든 지식은 '解釈'과 '豫言' 두 가지 밖에 없다고 믿기 때문이다. 解釈, 즉, 理解와 分析이라는 作業은 우리 주위에서 발생한 사건을 정리 요약하여, 우리 두뇌의 한구석에 간편하게 정리하는 작업이고, 예언이라는 작업은 내가 정리를 잘하였는가 잘못하였는가를 테스트하는 작업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즉, 예비고사를 치고, 대화를 다니고 경제학 박사를 하고, 교통고시를 준비하고 하는 그런 작업은 나의 주위의 森羅萬象을 한정된 수의 나의 뇌세포에 電氣化學적 코드로 입력시키는 작업

자!', '서로 사랑하자!', '열심히 살자!', '사회를 섬기자' 등등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인' 이야기, '그것이 나와 지금 무슨 관계인지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이야기, '너무 읊어질문하기도 미안한' 그런 이야기만 줄참 이기죽 이기죽해데면서 평생을 두고 두고 천천히 학생이나 信徒를 슬로우로 옮겨먹는 그런 분들 보다는, 얼마 전, 10월 28일 후회없이 피박살 난 이장립이가 화끈하고 솔직한 소부를 보았다는 면에서, 오히려 양심적인지도 모른다. 이 장립이는 말을 들려하지 않고 딱 찍어서 '10월 28일'하고 우리가 우리의 五官의 경험 속에서 확인해볼 수 있는 예언을 하고, 자신의 명예와 직장, 이 모든 것을 그 예언의 정확성 위에 걸고, 우리에게 확실한 선택을 요구하였기 때문이다. 즉, 이 장립이가 끼쳤던 피해는 10월 28일로 종지부를 찍지만, 하나님과 현실, 이 양자와 전혀 관계없이, 끈기 하나로 지금도 목회를 계속하시는 분들의 폐해는 언제가 그 끌인가를 생각해 보면, 참, 소름이 끼칠 수 밖에 없다. 그런 교회들에 그렇게 봉사를 해온린 사람들이 심판날에 얼마나 당황할까? 10월 28일 실망한 다미 선교회의 신도들이야, '이장립이에게 속았구나!'하고 다시 시작하면 그만이지만, 속을 것도 없이 당연한 소

리만 계속하는 돌팔이들에게 일생을 당하고 삶을 마친 그 어린 양들은 '헛믿은 것을 알았을 때 얼마나 당황할까? 이를 갈겠지. 나같으면 확인하고 믿는다. 확인해 볼 수도 없는 소리, 당연한 소리, 즉, 틀리는 소리보다도 더 문제있는 소리만 계속하는 교회는 나가지 않는다. 차라리, 이장립이처럼 시한부로 딱부러지게 찍어서 이야기하고, 확인해봐서 맞으면 계속 영업하고, 안맞으면, 자진 폐업할 각오가 있는 그런 교회로 나가고 싶다. 확인을 거부하는 것은 信仰이 아니라 야맹증이다. 쪽집게 예언을 못하는 것은 경제학이 아니라, 夜尿症이다. 딱떨이지는 교회가 없으면, 나는 일요일날은 그냥 집에서 비데오연속극보면서 놀겠다. 딱부러지는 경제학이 없으면, 나는 차라리 그 시간에 태권도 도장에 나가겠다. 어? 왜 갑자기 태권도 도장이야기와 비데오연속극 이야기로 훑혔지? 쉽게 흥분하고, 흥분하면 어려운 말과 상스러운 욕을 외장창 쏟아부어 내는 것. 난 참 이게 병이라니까! 하여간, 본론으로 빨리 돌아가자!

좌우지간, 필자는 아래에서 뱅쿠버에서의 주택가격을 예측한다. 멀티플 이퀄리브리아가 어떻고, 베이지안이 어떻고 잡소리를 충분히 하였으니까,

이었다면, 어느 동네, 어느 골목의 호텔 터를 잡아주고, 심지어는 어느 동네의 집값을 예측하여 주는 현장로포형 네피선 도큐멘터리 예언을 하는 작업은 뇌속에 입력된 코드가 정말로 정말로 환경과 '의미'로서 연결되어있는가를 경험적으로 테스트하여보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즉, 공부를 하는 것이 태권도 도장에 계속 나가서 열심히 수련을 하는 것이라면, 못된 골목대장 놈과 코피가 터지고 대거리가 깨지도록 짱풀들고 한판 맞장 떠보는 것은 예언에 해당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빛과 소금이라고 주장할 만한 그 무엇이 진짜로 있다면, 그 빛을 덮개를 씌워 감추지만 말고 기둥위에 걸어보아 진짜로 밝은 지 확인을 해보자는 것이고, 소금이라면, 부뚜막에만 올려 두지 말고, 국물 속에 넣어보아 진짜로 짠지 확인해보자는 것이다. 하여간, 모든 지식에 관하여, 이 '예언'이라는 활당한 작업은 바로 이렇게 '기둥에 걸어보는 작업', 또, '국에 넣어보는 작업'에 해당하는 결정적 마지막 순서가 아닐 수 없다. 필자는 '지식'에 관한 한 瞬間性 現場性 이야말로 永遠普遍의 真理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기 때문에, 즉, '道'에 관한 한, 刹那와 사바야말로 億劫과 涅槃으로 통하는 捷徑이자 유일한 좁은 문이기 때문에, 또, 理解와 分析이라는 고통스러운 작업에 대한 정당한 代價는 '품'이 아니라 '신통하게 맞

아 떨어지는 예언'이라고 믿기 때문에,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필자는 예언을 한다. 왜 화자들은 보통 사람들도 타당성을 확인해볼수 있는 실생활에 관한 떠벌어진 예언을 하기를 거부하는가? 특히, 왜 경제학자들이 우리 골목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자꾸 '精緻한 모델'뒤로 숨는가? 또, 왜 목사님들은 우리 생활 주변의 문제에 대하여 건강한 상식을 가진 사람들도 타당성을 확인해볼 수 있는 확실한 진단과 처방하기를 거부하는가? 왜, 목사님들은 '몇장 몇절'과 '유명한 신학자말씀'의 뒤로 숨는가? 필자개인은 간단히 이 분들이 모두 가짜이고 돌팔이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할 따름이다. 그 양반들이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은 하품이나울 정도로 당연 지당한 처방뿐이고, 이런 당연 지당한 처방은 절박한 현장과 구린내 철철 흐르는 그런 골목, 즉, 교실 밖이나 교회 밖에서 계속 살아가야하는 우리 중생에게는 그다지 별 볼일이 없는 지식이나 처방이라는 소리이다. 아니, 오히려, 이런 식의 당연한 처방은 천부당 만부당한 처방보다 훨씬 장기적인 폐해가 크다. 세상에 '성경공부' 열심히 하자는데, 어느 누가 감히 무어라 하리요? (심지어는 조계종의 종정님도 성경은 열심히 읽으라고 하신다.) 세상에 '교회봉사 열심히 하라'는데 어느 누가 도전을 하리요?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겨라', '초대교회로 돌아가

아랫면에 계속

예언 5. 이 예언은 세계에 특히 뱅쿠버지역에 영향을 미칠 만한 큰 전쟁이나 천재지변이 없다는 가정하에서만 타당하고, 앞으로 1년내에 그런 큰 전쟁이나 천재지변이 없을 가능성은 약 85%정도이다.

마지막으로, 이 예언이 빛나 가더라도 필자는 손가락에 장을 지진다거나 하는 악랄적인 행위를 하여 참회의 뜻을 표한다거나 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미리 밝혀둔다. 부동산 경기가 이렇게 돌아갈 적에 크게 히트치는 유단자급 묘수는 나중에 다시는 하기로 하고, 이렇게 딱 잘라서 예언을 하게 된 동기를 다음 단락부터 좀 친근 차근 설명을 하자. (장립아! 이 정도면 내가 너보다 낫지?)

〈필자 김영수 / Cranewood Corp 대표 682-8686〉

전문가의 서비스

박하일

이민·유학  
이민·알선  
유학안내

Bridgeway Business  
Consultants Inc.

#204-1437 Kingsway, Van. V5N 2R6  
Tel. 875-6646 Fax. 266-4037

야간 Tel. 266-7955

서울: (주)삼성이주공사내/캐나다대사관 정문앞  
서울 중구 무교동 95, 동민빌딩 501호  
B.822-779-6307 Fax. 822-755-2641

이민·유학

신속·정확·신용

(604)873-1734 / 873-4647  
(Cell)657-9997 (H)942-8865

CCFS 대표 김지한

#210-1050 Kingsway, Van.  
(코리아 플라자 2층)